

설 연휴 생활 정보 총집합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나흘 앞둔 3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시립묘지를 찾은 한 가족이 미리 성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고창~담양, 서해안고속도-호남고속도 연결
고창~장성, 정체 잦은 광주 시내 구간 피해

올해 설 연휴 귀성길에 고속도로 지·정체를 피하려면 고창~담양, 익산~장수 구간을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통한 고창~담양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고창 분기점에서 장성 분기점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42.5km의 도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88고속도로의 담양 분기점을 지나 호남고속도로의 대덕 분기점까지 곧장 달릴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통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며 익산 분기점에서 완주, 진안을 거쳐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장수 분기점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61km의 도로다.

도로공사 호남본부 측은 "고창~장성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전남 동부지역으로 가는데 이용거리가 13.3km 단축될 뿐 아니라 지·정체가 잦은 광주 시내구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역시 전북에서 충청·경북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공 호남본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에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귀성길에 귀경길은 7시간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설 당일인 7일 호남지역 고속

■ 고창~담양, 익산~장수 고속도로 노선도



도로의 교통량은 47만3천대에 달할 전망이다.

귀성길은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 사이 절정에 달해 광산IC→동광주 요금소 구간 등이 지·정체되고, 귀경길은 7일과 8일 오후 창평IC→동광주 요금소 구간 등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자동응답전화(1588-2505)를 이용할 수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5·18 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차
당번 의료기관·당직 약국 가동

광주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 동안 귀성객과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쓰레기 처리, 응급 진료 등을 돕기 위해 종합상황실(주간 613-2911~7, 야간 613-5500)을 운영하는 등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광주·전남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등도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 설 연휴 응급 의료기관

구분	병원명	전화번호
동구(4)	전남대학교병원	220-5555
	조선대학교병원	220-3129
	서남대학교병원	224-0671
	광주고려병원	230-9019
서구(5)	서남대학교남광병원	370-7871
	상무병원	600-7119
	광주한국병원	380-3119
	미래로 21병원	450-1119
	서광병원	600-8119
남구(3)	광주기독병원	650-5300
	동아병원	650-2515
	광주세티병원	460-7119
북구(6)	광주대병원	570-0119
	광주병원	260-7119
	광주상상병원	519-9119
	광주희망병원	608-6119
	광주일국병원	608-7119
	운암한국병원	608-8118
광산구(7)	하남성심병원	958-1250
	첨단종합병원	601-8119
	광주보훈병원	602-6119
	HN병원	950-9119
	송정사랑병원	949-9119
	신가병원	610-8129
	광주달린병원	610-9119

화물차량 묘지 진입 통제

◇교통대책=광주시는 6일부터 1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시내버스운행을 늘리고 노선을 조정한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가는 풍암16번, 풍암26번, 금호36번, 상무64번, 518번 등 5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37차례 추가 운행한다.

또 국립 5·18민주묘지와 시립공원묘지 등에 10만3천여명의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518번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지원 35번의 경우 5·18묘지와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 당일 수곡마을 입구에서 2.5t 이상 화물차량은 5·18묘지와 시립공원묘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다. 수곡지역인 동복수원지내 귀성객들을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순찰용 선박 2대를 이용해 안전수송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또한 나주·목포·완도 등 남부 방면으로 가는 귀성 차량은 광산 나들목을, 화순·보성·고흥 등 동부 방면으로 가는 귀성 차량은 동광주 나들목을 각각 거처도록 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방침이다.

◇비상진료체계 가동=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동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등 25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에도 항상 응급환자 진료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 환자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병·의원 680개소와 약국 560개소를 대상으로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도 운영된다.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은 시 홈페이지(gwangju.go.kr)에 게시된다.

각 구 보건소는 설날 당일에만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시와 자치구에는 진료대책상황실이, 1399 응급의료정보센터에는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운영된다.

설날은 쓰레기 수거 안해

◇쓰레기 처리=광주시는 연휴기간 동안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들을 설날(7일) 당일에만 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설 전날인 6일 아침 수거시간까지 모두 내놓고 설날 발생한 쓰레기는 다음달인 8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4일 각 구청별로 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설맞이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하고 시립묘역과 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10일까지 청결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가스충전소 정상 영업 유도

◇수돗물·가스 공급=광주시는 5일부터 8일까지 시민들이 연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342개 대형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에 정상 영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LP가스 판매소의 경우 자치구별로 하루 5개 이상 정상 영업을 유도한다. 전기·가스의 안전이 염려되면 스피드콜시스템(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으로 신고하면 된다. 수도관 등과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은 광주시 급수민원기동처리반(국번 없이 1210이나 613-61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도심권 진출입 146개 교차로
신호등 주기 연장 교통정체 줄인다

설 연휴 광주시내 도심권 진출입로 교차로의 신호등 주기가 연장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5일부터 10일까지를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관을 총동원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도심권 진입차량에 대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광주시내 주요 관문인 상무로·사암로 등 8대 관문으로 들어오는 146개 교차로 주방향 신호등 주기를 최저 10초에서 최대 40초까지 연장해 차량정체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귀성·귀경길 정체 예상되는 고속도로 주요 IC(광산·산월·동림·서광주·용봉·동광주)에는 교통경찰관을 고정배치

해 교통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안내 입간판과 대형전광판을 설치해 차량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설 당일인 7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립공원묘지와 국립 5·18 묘지, 영락공원 주변에 교통경찰 50여명을 배치해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중앙선 침범과 음주·무면허 운전·과속·신호위반·난폭운전·갓길운행 등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asineun Tteoban' (마시는豚테반) featuring a piggy bank and a tray of food. Text includes '광주·전남 최대! 화물차량!' and '마시는豚테반'.

Advertisement for 'Cheongha' (청하) featuring a green background with text '신축확장개업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and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대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